



平山申氏宗報

(04555) 서울특별시 중구 수표로 22 平山申氏大宗中
 TEL : 02-776-6111, 6151, 7978 · FAX : 02-776-7990
 홈페이지 www.pyeongsan.com · E-메일: pyongsan777@naver.com

春川墓所 033-243-2076
 表忠齋 053-985-1330
 龍山壇 061-363-1495
 德陽書院 010-8762-7799



發行人 申 澈 秀
 編輯人 申 澈 秀
 印刷人 宋 永 哲



대중중 아세아빌딩(1층) 용도변경 및 개량공사



평산신씨대중중은 서울 중구 수표로 22의 아세아빌딩 7층을 대중중 사무실로 사용하고 있으며, 여타의 2층부터 8층은 10여개 외부업체에 임대 사무실로 제공하고 있다. 입주업체의 차량 2대가 주차하던 1층의 주차 공간은 어둡고 칩칙하여 건물 전체의 이미지를 훼손시키고, 차량의 출입이 빈번하여 사고위험이 상존하고 있었다.

이에, 대중중 철수

(澈秀)도유사는 아세아빌딩 1층의 용도변경과 함께 개량 공사를 실시하여, 임대료수입을 증대시키며 대중중 건물의 외관을 밝고 안정적으로 개선하고자, 사업계획을 수립하여 재산관리위원회 보고와 정·부도유사 및 감사유사 연석회의 보고를 거쳐, 2021년도 정기총회의 권한을 위임받은 상임유사회의(2021. 4. 7)에 보고하였다.

이 공사가 5월 하순부터 시작되어 6월 초순에 마무리되고, 이후 입주업체의 인테리어공사를 진행하여, 2021년 6월 17일 「매머드커피 익스프레스」 店이 오픈(open)하게 되었다.

건물의 1층이 밝고 깨끗한 이미지로 변신을 하는 것과 더불어, 건물 3층 벽면에 「평산신씨대중중, 平山申氏大宗中」간판을 새로이 제작하여 부착 함으로써 대중중을 찾는 사람들이 쉽게 알 수 있도록 하였다.

지나가는 행인들이 “건물에 복(福)이 들어오겠습니다”라는 얘기를 해 주기도 한다.

편집·종규위원회(제9, 10차) 개최



[위원장 표군]

편집·종규위원회(위원장 彪均 진사 공중중 도유사)는 제9차 회의를 5월 7일(금요일) 정오에, 제10차 회의를 6월 4일(금) 오전 10시30분에 개최하였다.

두 차례의 회의에서는 2014년 3월에 개정된 이후 8년만의 개정을 준비하고

있는 대중중 규약과 제 규정들에 대해 그 의미와 목적을 되짚어 보기로 하고 위원들의 자유토론을 이어나갔다. 위원들은 제안이나 의견을 이메일로 공유하면서, 회의 이전에 검토를 마친 후 회의에 임하여서는 충분하고 심도깊은 논의가 이루어 지도록 많은 노력을 하였다.

논의된 내용으로는 대중중 규약과 제 규정의 제정, 개정은 평산신씨 대중중의 10년, 20년 이후 시대에 부응하는 미래지향적인 거시적 관점에서 검토하고, 추진되어야 하며, 대중중의 각 세대가 소통하고 공감할 수 있도록 신진대사(新陳代謝)를 원활히 하여 새롭게 변화(變化)하는 계기가 될 수 있어야 한다고 의견을 모았다.

그렇게 함으로써 미래의 평산신씨 대중중은 지금보다 한 차원 높은 품격의 명문중중(名門宗中)이 될 수 있을 것이며, 품위와 품격을 갖춘 대중중을 후손에게 물려주어야 하는 일은 현재의 나, 그리고 우리가 지금 해야 할 시대적 사명(使命)이라는 것이었다.

이러한 관점에서 많은 토의와 사례분석 등을 통해 규약과 제 규정의 각 조문(條文)이 작성되고 보완과 수정을 거쳐 편집·종규위원회 차원의 정리작업이 진행 중이다.

결과물은 2021년 7월중, 편집·종규위원회 위원장이 대중중 철수(澈秀)도유사에 보고할 예정이고, 이후, 대중중 도유사는 대중중 내부의 광범위한 의견의 수렴 과정을 거치도록 계획하고 있다.

[3大 遺跡地 碑文③]

시조 장절공 신숭겸장군
신도비명 - 2편

(始祖 壯節公 申崇謙將軍神道碑銘) : 춘천소재



☞ 지난호에서 이어집니다.

이로부터 역대의 임금에 잇따라 준행(遵行) 하더니 또한 우리 선왕(先王) 정종장효대왕(正宗莊孝大王) 20년 병진(서기 1796)에 이르러서는, 평산의 태백산성에 공과 배현경복지점 유태사 금필(庚太師黔弼)의 철상(鐵像)이 있는데 고을 사람들이 소중히 받들며 제사 지낸다는 말을 듣고 임금이 크게 감탄하면서 말하기를 『삼한(三韓)을 통일한 공을 도운 자는 장절공(壯節公)과 여러 태사들이다.』하여 친히 제문을 짓고 공의 후손으로서 앞서 대장(大將)을 지낸 바 있었던 대현(大顯)에게 명하여 말술(斗酒)과 생체(生毳) (돼지의 날고기)로써 사당 아래에 나아가 북을 치고 군악을 연주하여 유식(脩食)하게 하였으며 예조(禮曹)에서는 액호(額號)를 의논하되 기공(紀功)이라 하였더니 임금이 사태사사(四太師祠)로 고치게 하였다.

아! 공의 충(忠)과 열(烈)은 천고(千古)를 두루 두루 헤아려도 오직 기신(紀信)이 이 같을 뿐이요 그 밖의 예(例)가 있음을 나로서는 알지 못하겠다.

그러나 공은 기신보다도 두 가지 나은 것이 있으니, 기신은 한고조(漢高祖)의 평범한 장수로되 공은 한 나라의 터전을 개창한 원훈(元勳)인지라 이는 살아서 나은 것이요, 남궁(南宮)의 잔치에 한고조가 다만 삼절(三傑) (소하, 장량, 한신을 말함)의 힘만 칭찬하고 기신은 언급하지 않았으며 공은 고려태조의 측근이 여겨 슬퍼함이 저와 같았고 천 년 후에도 우리 두 임금의 그윽한 감회를 불러 일으키어 융숭하게 보답함이 이와 같은지라 이는 죽어서도 나은 것이다.

하물며 그 훌륭한 명성과 의로운 소문이 밝은 세상 여러 선비들의 우러러 받드는 바 됨으로써 무릇, 저 고향

마을로 부터 공적을 드러낸 고장과 충용(忠勇)을 떨친 곳에 이르기까지 모두 조두(組豆)를 받들어 제향하고 장수(藏修) (쉬지 않고 학문에 힘씀)하며 공덕을 칭송(稱頌)하되 세대가 더욱 오래될수록 은택이 더욱 새로우니 이는 또 잠깐의 강개(慷慨)함만으로써 명성을 이루게 되는 사람으로서는 바랄 수 있는 바가 아닌 것이다. 아! 거룩하고 뚜렷하지 아니한가.

공의 적덕(積德)여경(餘慶)이 후손들에게 흘러내리어 평산신씨가 해동(海東)에 두루 가득하여 이름나고 두드러진 이들이 수두룩하게 벌이어 있으며 보첩(譜牒) 백여권이 세상에 전하고 있으니 여기서는 대개 언급하지 않겠다.

또 살피건대 공이 돌아간 뒤에 정령(精靈)이 아주 기이하여 해동명신행적(海東名臣行蹟)에 이르기를, 고려 태조가 팔관회(八關會)를 베풀 때에 공과 김락의 전사한 일을 측은히 생각한 나머지, 짚을 묶어 가상(假像)을 만들어서 반열 위에 앉게 하고 주식(酒食)을 내리자 술이 문득 저절로 말라지고 가상이 일어나 춤을 추었다 하였으며, 뒷날 예종(睿宗) (고려조의 16대 왕)이 평양에 순행하여 팔관회를 베풀 때에는 두 가상이 감(簪) (옛날 벼슬아치가 조관의 꽃는 비녀)과 홀(笏) (임금에게 빌 때 손에 쥐는 물건)을 갖추고 붉은 옷을 입고서 말을 타고 뛰어 달리는지라 임금이 기이 여겨 물으니 좌우에서 그 연유를 아뢰자 임금이 몹시 감개하면서 김락의 손(孫)과 공의 현손(玄孫) 경동(敬童)에게 벼슬을 주었다 하였다.

또 여지승람(輿地勝覽)에 이르기를, 공이 돌아간 뒤에 곡성(谷城)의 성황신(城隍神)이 되었다 하였고 그의 자손들이 또한 말하기를 묘소를 수호하는 자가 혹시 근신(勤慎)하지 않으면 문득 재앙을 빚어낸다고도 하여 세상 사람들이 혹은 의아함이 없지 않으나 나는 적이 생각하건대 그러하지 않다고 하는 것이다.

옛날 장자(莊子)가 말하기를, 은(殷)나라의 부열(傅說) (殷나라 정승임)이 죽어서 열성(列星)이 되었다 하였고, 류종원(柳宗元)이 유주(柳州)에 귀양가서 죽으니 그 신령이 고을(州)에 내리는지라 나지(羅池)의 사당에 이를 향사하였는데 이 의(李儀)가 술에 취하여 만홀(漫忽)히 하다가 폭사(暴死)하자 한유(韓愈)가 비문에다 이것을 적었으며, 그 밖의 오자서(伍子胥)나 관우(關羽) (자는 雲長이고 시호는 壯穆)같은 경우라도 뚜렷한 영(靈)異함이 전기(傳記) 가운데 나오는 것은 속일 수 없는 일이다.

대저 사람이 태어나되 대단한 용맹과 뛰어난 기백이 있는 자로서 비명(非命)에 죽게 되면 그 애뜻하고 끊어오르듯 한 정상(精爽)이 육체를 따라서 사라지지 아니하고 이따금 황홀히 변화하여 산사람(生人)을 몹시 놀라게 하는 것이니 이 또한 사리에 없었을 수는 없는 바일 것이다.

그러나 공과 같은 이는 스스로 천지를 뒤덮고 우주를 휩쓸어도 민멸(泯滅)되지 않을 것이니 또 어찌 구구하게 이러한 것을 논하겠는가.

묘소에 본시 신도비가 없었더니 올해 갑자에 대현(大顯)이 비로소 그의 종인(宗人)들과 더불어 도모한 다음 외(外)裔인 나 조순(祖淳)에게 글을 청하였다. 아! 공이 돌아간 지 이제 천여 년이 되었는데 이것도 혹은 때를 기다림이 있

어 그러함인가. 사양하려 해도 받아들여지지 아니하고 또한 감히 굳이 그럴 수도 없는 일이다. 명(銘)하여 이르기를, 신씨(申氏) 세계(世系)의 면면(綿綿)함이어 맨 먼저 곡성(谷城)에서 비롯하였도다.

사서(史書)에는 광해주(光海州)로 적혔으니 아마도 뒷날 옮겼으리라.

이제는 평산(平山)으로 관향(貫鄕)하여 나라에서 내린 땅도 가졌도다.

거룩하신 우리 태사(太師)여 하늘이 고려(高麗) 위해 내셨네.

궁시(弓矢)의 위엄이요 간성(干城)의 용자(勇姿)로다.

궁예(弓裔)가 음학(陰害)하여 절로 꺾이자 철원(鐵原)에서 처음 치시었네.

태사가 기미(機微)에 밝으시어 바람 일듯 번개 치듯 하였도다.

고려 태조(高麗太祖)를 추대하여 포학을 없애고 바로잡았도다.

홍유(洪儒) 복지겸(卜智謙)과 서로 손잡고 배현경(裴玄慶)과도 덕(德)을 함께 하시었네.

계림(鷄林)을 조종하고 압록(鴨綠)을 무찌르며 나라의 터전을 돕고 천명(天命)을 비롯하였네.

신라(新羅)는 혁명으로 쓰러져 가고 견훤(甄萱)①은 참람하게 반역하였네.

나라의 신기(神器)는 옮겨지고 흘(勿)②과 면류관은 바뀌었도다.

임금이 태사에게 말씀하시되 맹방(盟邦)이 화액(禍厄)을 당했구나!

내가 곧 싸움에 나가리니 그대는 출사(出師)하여 길(吉)할지이다.

날쌔 기병(騎兵) 5천으로 팔공산(八空山)에서 무찔렀도다.

천시(天時)가 이롭지 못하여 힘이 빠지고 지략(智略)이 다했었네.

봉축보(逢丑父)③가 제경공(齊頃公)을 닮았듯이 기신(紀信)④이 초패왕(楚霸王) 속이듯 하였도다

머리 잃을 걸 각오한 용맹(勇)이요 몸을 던져 버리는 충성(忠)이로다.

임금이 태사를 측은히 여김(憐)이여 죽음이 더욱 으뜸 공(功)을 이뤘었네.

선진(先軫)⑤의 얼굴인 듯 산 것만 같고 범려(范蠡)⑥의 주상(鑄像)인양 정교(正)하도다.

금으로 머리 새겨 시신(尸身)에 합쳐 후한(後漢) 예(禮)를 갖추어 장사(葬) 지냈네.

높다랗게 솟은 세 봉분(墓)이여 아! 비방동(悲方洞) 언덕(嶺)이로다.

우리 태사 신하(臣)이실제 씩씩한 무용(武勇) 뛰어났었고, 우리 태사 돌아갔건만 그 신령(神靈) 늠름(凛)하여라.

오자서(伍子胥)가 조수(潮水)를 몰아치고 관운장(關雲長)이 순행(巡幸)길을 도왔듯이,

황홀하고 눈부신 영(靈)이시여 현저(顯)히 민생(民生)을 도우시도다.

넘쳐 흐르는 태사의 여경(餘慶)이여 대대로 후손(後孫)들이 창성(昌盛)하였네.

수없이 떨치고 떨쳐 팔도(八道)에 흩어져 가득찼도다.

백성도 되고 선비도 되고 더러는 한 나라의 스승도 되었네.

기린(麒麟) 같아라 봉황(鳳凰) 같아라 태평(太平) 성대(聖代)의 빛이로세.

빛을 펼치고 덕업(德業)을 적어 큰 글자로 깊이 새겼네.

멀고 아득한 이 외손(外孫)은 사책(史策)을 간직하는 직책을 맡았는데.

거룩하신 명성(名聲)을 돌이켜 보오매 천년(千年) 옛 일이 이제런 듯 하도다.

태사의 공적(功績)이 없어지지 않을 진대(進代) 나의 영광도 다함이 없으리라.

숭정(崇禎) 기원후 삼을축(三乙丑)(순조 5, 서기 1805) 10월에 세우다.

註 ①甄萱=後百濟의 시조. 서기 892년부터 45년 동안 왕위에 있었다. 本姓은 李氏이며 견훤으로 통칭된다.

②笏=여기서는 圭玉 또는 圭璧을 가리킨다. 天子가 諸侯를 봉하는 標識로 주는 瑞玉인데 祭祀 또는 謁見할 때 지니던 것.

③逢丑父=春秋 때 齊나라 사람인데, 齊頃公이 齊나라 군사들과 싸우다가 패하게 되자 서로 位地를 바꾸어 제경공은 죽음을 모면하고 봉축보는 붙잡혀 죽게 되었다가 간신히 빠져나왔다. 左傳에 보인다.

④紀信=漢나라 高祖의 忠臣. 고조가 項羽에게 포위되었을 때 고조를 대신하여 위기를 모면케 하고 자신은 항우에게 燒殺되었다. 史記 및 漢書 高帝紀에 자세하다.

⑤先軫=春秋 때 晉나라 大夫. 楚나라 및 秦나라 군사들과 싸워 크게 이겼으며, 뒤에 북방민족(北狄)의 침공을 받았을 때 투구(冑)를 벗고 적진에 들어가 죽었다. 左傳에 보인다.

⑥范蠡=春秋 때 越나라의 功臣. 월나라 임금 句踐을 도와서 吳나라의 夫差를 쳤으며 벼슬을 내놓고 齊나라로 갔는데 구천은 범려의 형상을 鑄造하여 자리 곁에 얹혀 두고 정사를 의논하였다 한다. 吳越春秋에 자세하다.

崇禎紀元後三乙丑十月 日立

▶고려벽상호기위태사개국공삼중대광의경익대광위이보지절저정공신광익효절현양시장절신공신도비명高麗壁上虎騎衛太師開國公三重大匡毅景翊戴匡衛怡輔砥節底定功臣匡翊效節獻襄諡壯節申公神道碑銘并序

- . 외에 원임(元任) 대제학(大提學) 보국승록(保國承祿)대부(大夫) 영돈령부사(領敦寧府事) 겸(兼) 지경연실록사(知京延實錄事) 규장각(奎章閣) 검교(檢校) 학(學) 영안부원군(永安府院君) 안동(安東) 김조순(金祖淳)은 삼가(三) 짓고.

- . 후손(後孫) 승의랑(承義郎) 수홍문관(守弘文館) 부교리(副校理) 지제교(知製敎) 겸(兼) 경연시독관(京筵侍讀官) 춘추(春秋) 관(館) 記注(記注) 官 實錄(實錄) 記注(記注) 官 東學(東學) 敎授(敎授) 文臣(文臣) 兼(兼) 宣傳(宣傳) 官 緯(緯)는 삼가(三) 쓰고.

- . 외에 대광(大匡) 보국승록(保國承祿)대부(大夫) 의정부좌의정(議政府左議政) 겸(兼) 영경연사(永京筵) 사(司) 外(外) 裔(裔) 大(大) 匡(匡) 輔(輔) 國(國) 崇(崇) 祿(祿) 大(大) 夫(夫) 議(議) 政(政) 兼(兼) 領(領) 筵(筵) 事(事) 監(監) 春(春) 秋(秋) 館(館) 事(事) 달성(達城) 서매수(徐邁修)는 삼가(三) 짓고.

2021년도 상반기 전자대동보 수단 신청 접수현황

금년도 상반기 대종중에서 접수한 전자대동보 수단신청 각 종파별 접수 현황 및 수단비 배분은 아래와 같습니다.

- 가. 총 접수인원 : 198명
- 나. 수단 접수비 : 9,403,000원
- 다. 배분 대종중
 - 대종중(30%) : 2,820,900원
 - 파종중(70%) : 6,582,100원

순위	파 별	입금일	신청자	인원	접수비	파종중	대종중	비 고
						70%	30%	
1	정언공파	01/21	동 명	2	100,000	70,000	30,000	
2	한성윤공	06/23	홍 섭	3	130,000	91,000	39,000	
3	판사공파	04/08	영 병	21	960,000	672,000	288,000	
		06/28	상 열	26	1,632,000	1,142,400	489,600	
	소 계		47	2,592,000	1,814,400	777,600		
4	제정공파	02/18	귀 철	20	800,000	560,000	240,000	30% 입금
		03/18	현 관	1	20,000	14,000	6,000	
		03/29	현 정	12	477,000	350,000	150,000	
	03/31	23,000						
소 계			760,000	364,000	228,000			
5	문희공파	04/17	민 호	6	300,000	210,000	90,000	
		04/22	진 철	4	160,000	112,000	48,000	
		05/06	경 철	8	405,000	283,500	121,500	
		05/14	동 한	18	910,000	637,000	273,000	
	소 계		36	1,775,000	1,242,500	532,500		
6	사간공파	01/18	중 현	1	160,000	112,000	48,000	파종중 선공제 (70%) 총계에서 제외
		01/18	금 철	1				
		03/17	동 명	38	1,330,000	931,000	399,000	
		04/28	선 일	13	775,000	542,000	232,500	
		06/28	철 식	24	1,221,000	854,700	366,300	
소 계		77	3,486,000	2,440,200	1,045,800			
총 계				198	9,403,000	3,581,900	2,820,900	

수단 분배금은 각 파종중 계좌로 입금



나무 숲속에서 방울져 내리는 낙수와 '도이장가'를 부르는 가수의 청아한 소리는 마음깊이 감동을 주기에 충분했다. 대종중의 철수(澈秀)도유사와 강원도화수회의 용철 회장을 비롯한 종원들은 몇 년전 부터 묘역을 통해 시조님의 위상과 정신을 홍보하기 위한 고민을 하였다.

그 결과 묘역의 환경개선과 다양한 문화 활동을 통해 널리 홍보하기로 마음을 모았다.

시조님 묘역은 한 해에 만 오천 명 이상의 방문객들이 찾아오는 곳이다.

이렇게 많은 방문객이 찾는 명소인데 그동안 대종중에서는 묘역 보존에 비중을 두어 별다른 변화가 없었다. 그러나 현대를 살아가는 우리에게 시조님의 정신과 행동이 어떤 의미가 있고, 어떤 가치를 본받아야 하는지를 알 수 있도록 개발하고 준비하여 실행해야 하는 시기가 왔다고 생각한다.

이러한 가치를 문화로 정착시키고 보존해야 오래도록 시조님의 충의와 희생정신이 후대까지 기억하게 될 것이다.

'도이장사'는 고려 예종 15년(1120)에 서경(평양)에서 있었던 팔관회(八關會) 축제 때 예종이 직접 '도이장사'를 지어 내려주었고, '도이장가'는 축제 후 개경(개성)으로 돌아와 평민들에게 충의 정신을 널리 알리기 위해 새로이 지어 널리 알리게 하였다고 한다. '도이장가'는 현재 남아있는 향가 16편 26수 중 하나이다.

'도이장사'는 팔관회 축제 자리에서 가상희(假像戲)를 보고 지은 것으로 시조님과 김락 장군께서 순절하신 뒤 193년이 지나 어수선했던 사회를 숭고한 충의(忠義)정신을 통해 고려를 새로이 상기시키는 계기가 되었다.

예종은 고려의 사회가 불안했던 시대적 배경에서 시조님 희생의 숭고함을 시와 노래를 통해 관료들은 물론 백성들에게도 충과 의의 정신을 통해 고려사회를 결속시키려는 의도가 있었을 것으로 생각된다.

이번 음악회 때 초연된 '도이장가'는 국악가수 권미희씨가 곡을 붙여 직접 공연하였다. 권미희씨는 서울과 지방에서 활발하게 활동하는 프로 국악가수로 몇 년 전 대수(大秀/정언공 31세) 대종중 제례위원의 안내로 춘천 묘역을 방문하였는데, 사당을 지나 울창한 소나무 숲을 오르니 파란 잔디 위 세 개의 봉분과 묘소를 둘러싼 거대한 기운이 권미희씨 온몸에 전해져 오는 것을 느끼는 놀라운 경험을 했다고 한다.

권미희씨는 나라와 왕을 위해 끝까지 싸우신 군은 절개와 기상이 담긴 '도이장가'를 어떻게 표현할 것인지 몇 날을 고민하며 신승겸 장군께 감사와 존경의 마음을 담아 기도를 드린 후, '도이장가'는 국악 장르로 표현되어야 어울린다고 생각하고, 신승겸 장군의 거룩한 업적을

춘천묘역에서의 "작은 음악회" 도이장가(悼二將歌) 초연(初演)



녹음이 짙어가던 5월 29일, 간간이 비가 내리는 가운데 시조님 묘역 전자청 앞 광장에서 작지만 의미있는 음악회가 열렸다. 코로나19 관계로 대대적으로 홍보는 하지 못했으나 강원화수회 일부 임원과 대종중 총무, 문화부장을 포함해서 70명이 넘는 관객들이 참석하였다. 소

칭송하고 찬탄(讚歎)하는 마음을 모두가 한 목소리로 노래를 하여 장군께 까지 가 닿을 수 있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곡을 만들었다고 한다.

2021년 5월 29일 초연을 했을 때, 비가 내리는 곳은 날씨였지만 함께 해주신 분들 모두가 기쁨과 경외심이 가득한 밝은 마음으로 경청하시는 모습이 느껴져 노래하는 동안 무척이나 뿌듯하고 행복했다고 한다..

‘도이장가’ 노래의 후렴구는 ‘아 그대들의 끈고 끈은 업적, 오래 오래 빛나리로서이다. 영원히 영원히 살아 숨쉬리 영원히 기억되리’ 라는 가사로 되어있다.

후렴구처럼 장군님의 정신은 물론 후손들도 오래 오래 빛나고 기억되기를 기원하고, 가까운 시기에 춘천 묘역에서 모두가 한 목소리로 신승겸 장군의 업적을 영원히 기리는 마음으로 ‘도이장가’ 노래를 불러 웅장하게 울려 퍼질 날이 오기를 기대한다고 이야기 하면서 작곡하고 노래 부른 소감을 전해왔다.

이번 공연은 코로나19로 인해 공연할 기회를 잡지 못하였다가 초연을 하게 되었는데 음악회에 참가했던 관중들은 국악풍의 곡으로 국악가수의 청아한 목소리가 어우러져 공연이 훌륭했다고 평가를 하였다.

앞으로 시조님 묘역을 중심으로 다양한 발전계획과 문화프로그램을 통하여 시조님의 숭고한 희생정신과 충의정신을 계승시켜 평산신씨가 명문가라는 자부심을 후손 대대로 물려줄 기반을 조성하고, 대한민국의 당당한 명문가로서의 위상을 지속하고자 하는 노력과 함께 모두에게 열린 사고로 각 세대와 종원, 시민들에게 다가가야 한다는 사명감으로 이번 음악회를 기획한 의미가 있다고 생각한다.

도이장가 (悼二將歌)

님을 온전케 한 마음은 하늘 끝에 미치니
넋이야 가셨으나 삼으신 벼슬만큼 또 하는구나
바라보면 알리라 그 때의 두 공신이어
오래 되었으나 끝은 자취는 나타나시도다.

(양주동이 ‘도이장가’의 원문을 해독한 것임)

※ 박인희, 『도이장가의 창작배경 연구』와 김기중, 『향가와 그 한시의 관계』를 참고하였음.

춘천 시조 장절공

추향제(秋享祭) 안내

금년도 추향제는 10월14일(음9월9일) 목요일입니다. 아시는 바와 같이 코로나 19 질환이 어느 정도 진정되고 있습니다만 앞으로 정부의 방역지침을 관망하면서 종원님들에게 공지하려고 합니다.

파종중 · 화수회 소식

2021년도 전서공 향사 봉행 및 정기총회 개최



[도유사 동석]

전서공파 종중(도유사 동석)에서는 2021년 4월 25일(일) 12:00 전서공 휘 호(典書公 諱 灑)공의 향사를 단(壇)이 조성된 경기도 가평군 청평면 상천리 무주동(빛고개) 단전(壇前)에서 동석 도유사 외 6분이 참석하신 가운데 엄숙하게 봉행하였다. 코로나19 질환에 따른 대비를 철저히 하고 행사를 진행하였다. 이날 행사에 초헌관은 현각(鉉珏, 청평), 아헌관에는 동석(東錫) 도유사, 종헌관에는 현화(鉉和)총무가, 축에는 광순(光淳) 대종중 고문께서, 집사로는 동휘(東輝, 도촌) 과 영철(永澈, 청평)으로 분정되었으며 광순고문의 집례로 간소하지만 경건한 가운데 엄숙히 진행되었다. 향사 후에는 2021년도 정기총회를 개최하여 결산사항을 비롯하여 모든 사항이 원안대로 통과되었다.

평산신씨 판사공파 종택 별채 공사 완료



경북 청송 파천 중들2길 16번지에 자리잡고 있는 국가지정 중요민속자료 282호인 판사공파 종택이 딸린

별채 보수공사가 완료되었다.

중수공사는 지난 2018년 문화재청에서 당초 1억7천만원의 예산을 투입, 공사를 진행하였으나 보다 완벽한 복원이 필요하다는 문화재위원의 지적에 따라, 설계의 변경을 거쳐 3억원의 예산을 추가로 투입하고 공사 진행 중 2019년 8월 8일 붕괴사고를 당하였으나 2년여의 공사 끝에 2021년 6월 1일 새로 단장하게 하였다.

사랑 별채는 종택 부속건물로서 1784년(영조20년) 장절공 30세손인 종열 선조께서 건축하셨다고 알려져 있다. 이는 1982년 누수로 인해 1차 중수를 하면서 해체할 때 상량문에 기록이 남아 있어서 상세하게 건축년도가 알려지게 되었다.

별채는 집성촌인 중들마을의 구심점으로써 마을의 대소사를 의논하고 마을 원로들이 바둑을 두면서 친목을 도모했던 공간이기도 하였으며, 때로는 과객의 쉼터로서도 제공되었다고 한다.

1970년대에는 초등학교 교정으로 제공되기도 하여 많은 동민들의 기억 속에 코흘리개 유년 시절의 향수를 자아내는 장소이기도 하다.

마당앞의 회화(괴화)나무 고목 역시 300여년의 역사를 간직한채 묵묵히 건물을 지켜보고 있다. 한편 이번에 새로 단장된 별채의 당호는 “안분당”으로써, 세태에 영합하지 않고 절의를 위해 핍박의 험난한 길을 후회없이 택한 불회재 선조 뜻을 이어받아 청빈한 선비의 기풍을 지키고자 종렬 할아버지께서 명명하셨다고 한다.

[제보:세원 판사공파 (전)도유사, (전)대종중 문화부장]

사간공파 판원사공(諱 敬宗) 향사봉행



崇祿大夫判中樞院事公(諱 敬宗)의 2021년 향사를 4월25일 11시에 경기도 가평읍 달전리 산81번지 墓所에서 奉行했다.

公은 思簡公의 次男으로, 醫學을 연마(研磨)하여 仁術을 베푸시니 燕山 乙丑에 王命으로 內醫院 判官이 되어 어전(御殿)에 入侍하시고 뛰어난 醫術로 因하여 면포(綿布 三千匹)를 下賜받으셨으며 內醫院 總監(摠監)인 서령(署令)으로 특배(特拜)되시었다.

公의 女가 太宗의 七男 후령군(厚寧君) 간(杆)에게 出嫁하여 王子의 舅(장인)로서 崇祿大夫 判中樞院事로 贈職되시고 配位는 淸州鄭氏 貞敬夫人이 되시었다. 膝下에 四男 一女를 두시니 長男 守祉는 義禁府都事이고, 次男 守福은 刑曹都官正郎이며, 三男 守命은 官이 司果이고 四男 守仁은 官이 司正이시다.

公의 墓는 양주군 별내면 화접리 注谷午坐에 上下墳(상하분)으로 있었으나 1997年 丁丑 5月 5일에 가평군 가평읍 달전리 山水谷 庚坐原으로 천장(遷墓)함됨(合窆)하여 현재에 이르렀다.

코로나19 방역대책에 의한 사회적 거리 두기와 집회 금지로 임원들만으로 향사를 봉행할 예정이었는데 뜻밖에 미국에서 鳳澈(봉철)宗 가족이 참석하여 간소하게 준비한 祭需와 맑은 술을 올려 精誠스럽게 봉행했다.

分定에는 초헌관 봉철(재미동포) 아헌관 동하(매곡종중) 종헌관 상섭(옥포종중) 도집례 근택 도유사 축관 현규(양곡종중) 사준 정철(구룡문중) 봉작 동운(참의공) 전작 선철(구룡문중) 집사 이섭(전곡) 알자 현구(홍천)宗 등 제 집사들이 봉행했다. 根澤 도유사는 향사 봉행 전에 간단한 인사와 경과보고를 하고 참제자들을 일일이 소개하였으며, 미국에서 일가족이 참석한 봉철 宗의 선친이신 鉉一 宗의 崇祖愛族의 정신과 가문에 남기신 큰 업적을 소개하였다.

참고로 崇祿大夫判中樞院事公의 향사는 매년 양력 4월 마지막 일요일에 봉행한다. [제보 근택 도유사]

여성의 사표(師表)로 추앙받는 “신사임당 추모제”



매년 5월 17일 강릉 예림회(회장: 조옥강)에서는 오죽헌 몽룡실에서 “신사임당 추모제”를 봉행하고 있다.

신사임당은 부친 기묘명현(己卯名賢) 진사 명화(命和)公과 용인이씨의 5녀 중 둘째따님으로 1504년(연산 10) 10월29일에 강릉부평촌 어머니 친정집에서 탄생하였고 본명은 인선(仁善)이고, 평산신씨 19세 손이다.

시(詩) 서(書) 화(畫)에 모두 뛰어나 조선 중기를 대표하는 예인이며 현모양처(賢母良妻)의 전형으로 대한민국의 어머니 표상이자 최고의 여성상으로 불린다.

한국여성예림회 강릉지회는 이를 추모하여 올해로 20회를 맞는 추모제를 봉행하였다.

추모제는 본회 여성들이 주관하여 흥기에 의하여 집례와 찬인이 진행하였고, 초헌관은 강원도지사 부인, 아헌관은 시장부인, 종헌관은 사회지도층 인사가 하였고, 분방(分房)은 강신례, 참신례, 초헌례, 아헌례, 종헌례, 사신례, 자유분향, 음복례 순으로 추모 제례를 봉행하였고, 제주는 두견주를 쓰고, 제물은 전 회원이 정성을 다해 장만하였다.

본회는 1991년도에 강릉선교장 안주인 성기희 교수가 15명의 회원과 함께 향토 전통문화 계승 발전을 목표로 창립하였다.

회원들은 강사를 초빙, 전통음식, 예절, 자수 복식, 등에 대한 교육을 받기도 하고 직접 체험하며 자기 수련에 온 힘을 기울이고 있다.

본회는 강릉단오제에서 전통음식을 판매하여 이익금으로 장학금 수여, 불우이웃돕기, 신사임당 제례를 구안(具案), 봉행하기 시작하여 현재 30여년의 역사를 지켜가고 있다.

올해에도 코로나19로 소소한 일상마저 지킬 수 없는 어려운 상황이었지만 방역규칙을 잘 지켜 지혜롭고, 아름다운 여성 "신사임당의 열"을 선양하겠다는 회원들의 일념으로 정성을 다해 추모제를 변함없이 봉행하고 있다. 평산신씨 대종중에서는 헌성금을 전달했다.

文貞公(號 象村. 諱 欽)春享祭 및 定期總會 開催 新任都有司 東奎選任



[신임 동규 도유사]

지난 4월 11일 (毎年 4월 둘째 주 日曜日 奉行) 京畿道 廣州市 退村面 嶺東里 檢玉洞 子坐 墓域에서 文貞公春享祭를 嚴肅히 舉行하였는데 大宗中 興均 祭禮委員長의 執典으로 初獻官으로 鉉錫, 亞獻官으로 東奎, 終獻官으로 鉉模가 獻爵하고 象村崇慕會長 東宙의 讀祝으로 左執事に 東赫, 右執

事 鉉穆, 山神祭官 鉉圭가 奉行하였는데 大宗中 鉉基 總務部長이 參禮하시어 더욱 뜻 깊은 祭禮를 禮畢하였다. 象村(諱 欽)께서는 21歲에 大科 及第하셨을 뿐 아니라 弟, 子, 孫子에 이르기까지 9식구가 大科及第하신 家門으로 仁祖朝에 領議政에 이르셨으며 朝鮮中期 4대 문장가의 한 분으로 象村集 等 수 많은 著書를 남기시었다.

文貞公의 墓域에는 贈 정경부인 全義李氏가 耐左되어 있고 묘표, 상석, 香爐石, 魂遊石, 長明燈 各1기와 금관조복형의 문인석, 望柱石 各2기가 배치되어 있으며

墓域 東南쪽 200m 지점에 京畿道 指定文化財 記念物 145호인 象村神道碑가 있는데 螭首, 碑身, 龜趺로 갖추어 졌으며 神道碑銘은 1633年 月沙 李廷龜가 짓고 沈悅이 글씨를 썼으며 金尙容이 篆 하였다.

春享祭가 끝난 後 열린 定期總會에선 第7期 都有司로 東奎 宗을 選任하였다.

신임 東奎 都有司는 龍仁出身으로 朝鮮時代 단 한 代의 祖上도 벼슬에 나가지 못한이 없고 建國以來 六寸以內 2名の 國會議員과 長, 次官. 二十餘名이 넘는 博士를 두고 있는 由緒 깊은 龍仁집안 出身이다. 父親은 忠北道 立病院 副院長으로 在任하시며 忠北 平山申氏들의 病院 利用에 많은 惠澤을 주기도 했다.

京畿南部圈에서는 이집을 일컬어 水麗집안이라 하는데 이는 水原에서 龍仁, 利川, 麗州를 이 집 땅을 밟지 않고는 지나 다닐수 없고 이집안의 힘이 미치지 않는 곳이 없다는 말로 일컫는다 한다. 建國大學校 大學院 技術經營學科를 卒業하여 博士學位를 받았고 서울시의회의장 秘書室長과 自由總聯盟 組織運營本部長, 東北亞經濟協力委員會 運營委員長과 教授를 兼任하고 2015년엔 大邱엑스포 組織委員會 副會長과 民主平統 常任委員, 西南大學校 兼任教授등을 歷任하였으며, 株式會社 네이처 파워 代表理事이기도하다. 國家技術經營學博士이며 다방면에서 活動하는 專門經營人이자 經綸을 두루 갖춘 才員으로 象村宗中을 빛낼 人才이며 平山申氏의 무궁한 發展에 많은 도움이 될 所重한 人物로 成長할 것이다.

충주문화원, 429주기 팔천고혼위령제 축소 거행



[팔천고혼위령탑]

충주문화원(원장 손창일)이 6월8일 429주기 팔천고혼위령제 행사를 코로나19 감염 예방과 확산방지를 위해 축소 거행한다.

팔천고혼위령제는 조선 선조 25년(1592년) 임진왜란 당시 왜군을 상대로 충장공 신립(申稫· 문희공파 20世/1546~1592) 장군과 김여물(金汝岫· 1548~1592) 부장 등 8000여 명에 이르는 의군들이 나라를 지키기 위해 배수진이라는 세계 전사 상 찾기 어려운 전 부대원의 순절이라는 옥쇄작전을 감행한

것을 기리고 숭고한 뜻을 되살리기 위해 매년 음력 4월 28일 충주시 칠금동 탄금대 팔천고혼위령탑에서 마련돼 왔다.

매년 지역 내 기관단체장을 비롯해 신립장군 후손과 김여물 장군 후손 등 일반 시민 200여명이 참석해 실시되었으나 코로나19가 발생한 지난해 부터 전체 행사를 취소하고 이날을 팔천고혼위령제날로 정해 오전 10시부터 오후 5시까지 각 종중과 관계기관의 조화를 계시하고 참배객들의 조문을 받았다.

이 기사는 충주문화원에서 제보해 주었다.

평산신씨 대중중은 매년 추모 조화를 헌화하고 있다.

※ 팔천고혼위령탑은 충주시가 2003년 3억7500만원의 예산을 들여 높이 15m와 기반부 지름 18m 규모로 건립했다. 탑신 상단부 혼불은 산화한 영령을 추모하는 모습이고, 하단에 마련된 신립 장군과 4인 군상은 최후를 맞아 굴하지 않은 호국충절을 상징한다.

누명을 쓰고 처형당한 “신각(申恪)장군” 기록 바로잡기

글: 신범수 (申範秀, 正言公派 31世, 아시아경제신문 정치부장)



[충현사]

경기도 양주시(楊州市) 연곡리에 해유령전첩지(蟹踰嶺戰捷地)가 있다.

임진왜란 때 조선육군이 최초로 승리를 거둔 해유령 전투(양주싸움)를 기념하는 곳이다. 전첩비 아래 해유령전투 속 장수 3인(신각, 이양원, 이혼)의 넋을 기리는 충현사가 있다.

매년 5월 19일 제향식이 거행된다. 5월19일은 승장(勝將) 신각(申恪) 장군(?~1592)이 누명을 쓰고 처형당한 날이다.

평산신씨 21세손인 신각 장군은 武科에 급제한 후 연안 부사, 경상 좌수사, 경상 우병사, 경상도 방어사 등을 거쳐 임진왜란이 발발한 1592년 팔도 부원수(副元帥)에 임명됐다.

평양으로 파천한 선조(宣祖)의 명을 받아 임진강 방어선에서 왜군을 저지하는 임무를 맡았다. 해유령에 매복해 있다가 왜군 70여명을 몰살시켰다. 조선육군 최

초의 승리다.

그러나 선조는 신각 장군이 전투 중 도주했다는 보고 등에 기초해 오히려 그에게 참형을 내린다. 신각 장군을 처형하기 위해 선전관이 해유령으로 출발한 당일, 전승 보고서와 왜군 머리가 도착한다. 비로소 진상을 파악한 선조는 처형을 중단시키기 위해 두 번째 선전관을 급파했지만 이미 참형이 이루어진 뒤였다.

이 사건은 임진왜란 첫 육지전 승리라는 역사성 그리고 당시 조정의 혼돈 상황을 상징하는 일로 역사 서적이거나 대중매체 등에 자주 등장한다.

양주시도 교육적 가치 등을 고려해 1977년 “해유령전첩지”를 경기도 기념물로 지정하고, 1991년 충현사, 1997년에는 전첩비를 세웠다.

필자는 이렇듯 자랑스러운 조상의 기록을 살펴보면, 시중에 유통되고 있는 역사 정보에 심각한 오류가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다. 어디서 유래했는지 확인할 길 없는 내용들이 공식 기록이나 교육 자료 등으로 제공돼 온 것이다.

필자가 확인한 오류는 두 가지다.

1) 신각 장군의 아버지는 신경안(申景顔)이다. 작은 아버지 신경민(申景閔)에게 입양되었다.

2) 장군의 부인 정씨는 남편을 장사 지낸 뒤 자결하였다. 정조 때 열녀문을 세웠다.

신각 장군은 밀직공 아(雅)의 자손으로 아버지는 조선 명종(明宗) 때 문신 의충(義忠), 할아버지는 조선 중종(中宗) 때 문신 억수(億壽)다.

우리 족보는 의충의 아들 각(恪)의 관직 정보를 ‘官兵使 宣祖壬辰爲副元帥 贈兵曹判書’라 적고 있다. 임진왜란 당시 부원수에 임명된 역사적 사실과 일치한다.

또한 신각 장군이 사후 연안 현충사에 배향되었다는 정보도 정확하다. 의충의 아들 각(恪)이 임진왜란 해유령전투의 주인공 신각 장군이라는 사실에 의심의 여지가 없는 것이다. 그런데 언제부터 어떤 이유에서 신각 장군의 부친이 경안(景顔), 경민(景閔)이라는 정보가 전설처럼 통용돼 온 것일까. 연유는 알 길 없지만 유력한 단서는 찾을 수 있었다.

우리 족보에는 아버지가 경민(景閔)이면서 이름이 각(恪)인 인물이 1명 있다. 정언공파 25세인 경민(景閔)은 조선 영조(英祖) 때 문신이며, 26세 각은 1738년 생으로 임진왜란 때 신각 장군과 한자까지 같은 동명이인이다. 각종 기록에 생부(生父)로 언급된 경안(景顔)은 경민의 친형이다. 이들의 복잡한 입양 관계가 족보에 적혀있는데, 이 같은 정보에 다소 왜곡까지 더해지며 신각 장군 기록과 혼합된 것이 아닌가 의심된다.

두 번째 오류는 부인 정씨가 자결하였다는 것이다.

조선 정조(正祖) 때 암행어사 이곤수가 ‘신각의 부인 정씨 자결 사실’ 등 지역에서 취합한 정보를 임금에게 보고한 기록이 정조실록에 있다.

이에 정조는 ‘평산의 열녀 정씨는 정려(旌閭)하라’고 명했다. 그러나 이 이야기의 주인공 신각(申恪, 부친

景翁)은 정언공파 26세로 1736년 태어난 또 다른 동명이인이다. 1759년 24세 나이로 병사(病死)하였다. 부인 정씨는 남편 사후 두 달 뒤 자결했고, 정조 11년인 1787년(丁未年) 정려가 내려졌다. 우리 족보에도 이러한 내용이 정확히 기록돼 있다(從夫節死丁未以炯旌閭). 반면 신각 장군 부인은 정씨가 아니라 효령대군의 4대 손으로 풍덕군수를 지낸 이광윤(李光胤)의 딸 전주 이씨다. 전주 이씨 족보를 살펴보니 이광윤의 막내 사위가 신각 장군이라는 사실을 교차 확인할 수 있었다.

필자는 이 같은 근거를 바탕으로 신각 장군 관련 정보를 다루고 있는 모든 기관과 접촉해 해당 내용을 수정하거나 삭제하도록 요구하였다.

2021년 6월 현재 한국학중앙연구원, 한국고전번역원, 두산백과 등이 잘못된 정보를 바로 잡았다. 그리고 이들 기관의 정보를 출처로 하여 역사 정보를 제공해온 네이버 지식백과 측도 개정 내용을 자사 서비스에 반영하였다. 다만 저작권 문제 등으로 한국콘텐츠진흥원 자료만이 지금도 오류 정보를 제공하고 있다. 필자는 이 기관과도 지속적으로 소통해 정확한 정보가 독자들에게 제공될 수 있도록 노력할 방침이다.

한편 신각 장군과 전주 이씨는 3남 3녀를 두었는데 장녀는 관찰사 전주류씨 영순(永詢)과 혼인하였다. 부인은 1592년 임진왜란 피난길에 왜군과 마주쳤는데 욕을 당하느니 자결을 하자고 하여 손윗동서 안산김씨와 동반 자결하였다.

이에 선조가 정려를 명했다는 기록이 동국신속삼강행실도(東國新續三綱行實圖) 이부동사(二婦同死)에 수록돼 있다. 전주 류씨 문중이 관리하는 열녀비가 현재 경기도 의정부시와 충남 청양군 두 군데에 있다.

그런데 지역 학계는 이부동사 속 열녀 평산신씨가 신각 장군의 장녀라는 사실을 전혀 인지하지 못하고 있었다. 해유령전투와 신각 장군 등 향토역사를 연구하고 교육하는 지역 교육계에 해당 사실을 전달했고, 향후 교육 및 학술 작업에 이 같은 내용을 반영할 필요성도 공감했다.

필자는 2021년 5월 19일 제향식이 열린 해유령전첩지 충현사를 찾았다. 지역 유지들 도움으로 매년 어렵사리 행사를 치르고 있다고 관계자들은 전했다.

해유령전투와 신각 장군을 기념하고 추모하는 움직임은 양주지역에서 꽤 오랜 기간 진행돼 왔다. 2015년에는 뜻있는 사람들이 힘을 모아 해유령전첩지 관람객을 위한 사적비도 새로 건립했다. 그러나 이런 과정에 신각 장군 후손의 참여는 미미했던 것으로 파악된다.

역사적으로 상당한 중요성을 지녔으며 마땅히 자긍심을 가져야 할 우리 선조를 기리는 행사에 문중과 후손들의 관심을 기대해본다. 아울러 인터넷에 떠도는 先祖 정보 가운데 정확하지 않은 것들을 발굴해내고 올바른 내용으로 고쳐나가는 작업도 더 활발해질 필요가 있지 않나 생각한다.

※ 밀직공파중중 도유사(언식)은 2019년 5월19일, 양주시 부시장 의회의장과 지역유림들이 참여하고 충현사 제전위원회에서 주관하는 해유령전첩비와 사당 충현사가 있는 양주시 백석면의 해유령 고개 추모제에 참제한 후, 장군의 종손을 찾기 위해 수소문하고 제보를 기다리고 있다고 종보(평산신씨 종보 제182호 2019년 7월10일)에 게재한 바 있음.

“해공 신익희 선생”묘전에서 65주기 추모식 엄수



묘역 위치 : 서울 강북구 수유4동 산74-3(코로나19로 63주기사진)



[신익희선생기념사업회 현승일회장]

지난 5월 5일 11시 강북구 수유동 신익희 선생 묘전에서 65주기 추모식을 엄수하였다.

선생(문희공 31세)의 자는 여구(汝喬)이며 호는 해공(海公)이다. 경기도 광주 출생, 조선시대 때의 판서를 지낸 신단(申壇)의 여섯 아들 중 막내로 태

어났다. 상하이(上海)임시정부에서 내무차장·외무차장 등을 역임했고, 귀국 후 입법의원, 제헌 초대, 2, 3대의원, 초대, 2대 국회의장. 1956년 민주당 대통령 입후보 출마 5월 5일 호남지방 유세를 위하여 전주로 가던 중 기차 안에서 심장마비로 서거, 5월 23일 국민장으로 장례가 치러졌으며 서울 수유동에 안장되었다. 1962년 대한민국 건국공로훈장 대한민국장이 추서되었으며, 1999년 선생의 정치적 고향인 강동구에는 선생의 동상이 건립되고, 해공공원(현 천호동공원), 해공도서관, 해공체육관 등 선생의 유지를 계승발전시키기 위한 시설들이 설치되어 있다.

해공 신익희선생 기념사업회 회장(현승일)은 이날 추모사를 통해“헌법은 그 나라 국민이 신봉하는 정신적인 가치와 그 나라의 주권이 누구에게 있느냐 하는 國體이고, 모든 국가는 성문헌법이든 비성문헌법이든 헌법을 가지고 있으며, 헌법이 없으면 국가도 없고 헌법을 존중하고 지키는 것은 국가의 생명을 지키는 일이라 하고” 이 자리에서는 해공 선생과 우리나라 헌법의 역사와 그 태생적 형질(유전인자: DNA)에 대해 회고하고자 한다고 하고 _중략_



국가보훈처지정 현충시설(2002년 지정/위치 :서울 강동구 천호3동)

임시헌장을 탄생시킨 연원은 3.1 독립운동에 있고, 임시헌장을 起草한 기초위원은 李始榮, 趙素昂, 申翼熙 3인이었으나 초안을 심의하는 議政院 회의에서 의원들의 질의에 대한 답변자로서 신익희선생이 나선 것으로 보아, 신익희 선생이 초안작성에서 중심적인 역할을 하였음을 짐작할 수 있다고 회상하면서 기록이 따르면 심의에서 의원들은 선생의 해박한 지식과 법 이론에 경탄을 금치 못하였다고 한다. 임시헌장을 격상하여 임시헌법을 만들 때는 의정원에서 신익희를 법제위원장으로 선임하여 임시헌법 제정을 책임지도록 하여 임시헌법공표: 1919. 9. 11, 임시헌법이 채택한 대통령 중심제에 의해 대통령을 선출할 때, 의정원의 일부 의원들은 신익희가 약관 25세에 불과하였음에도 그를 대통령후보로 천거하였고, 선생이 중심이 되어 초안하고, 의정원이 이를 심의 확정된 후, 대한민국 임시정부 임시헌장(1919. 4. 11. 의정원)이 선포되었다.

우리나라가 미국과 같이 건국의 공로자들을 “아버지”라고 부르며 숭앙(崇仰)하는 분위기라면 국민들은 신익희 선생을 “헌법의 아버지”라고 부르고 있을 것이다.

아직은 그러하지 못하다. 그러나 분단문제가 해결되고 임시헌장이 잉태시킨 자유민주주의 DNA가 남북 전 민족의 몸과 마음에 體化할 때, 우리나라는 세계정상 국가의 하나로 발전할 것이며, 국민들은 누가 시키지 않아도 신익희 선생을 큰 목소리로 건국의 원훈인 “헌법의 아버지”라고 부르게 될 것이다. 라고 추모하였다.

평산신씨 대중중에서는 신철수 도유사가 참제하고 추모 조화를 헌화하였다.

※ 선생의 묘소 우측 인접에는 독립운동에 힘썼던 아들 하균 선생의 묘가 있다.

해공선생은 와세다 대학 정치 경제학부에서 공부했을 때부터 재일통일학우회를 결성하고 기관지로 발행된 ‘학지광’의 주필, 총무 등을 맡아 유학생들과 국내 청년들의 민족정신과 독립사상을 고취하고자 하였고, 1919년 3월, 3.1운동 이후 상해에서 해공선생이 대한민국 임시정부를 수립하는데 적극적으로 동참했고 내무차장, 외무차장 대리, 국무원, 비서장을 역임해 활동했다. 독립운동에 헌신한 공적으로 건국포장이 추서되었고, 3선 국회의원을 하셨다.



대전 현충원 장군 묘역찾아 정수(正洙)전 도유사 추모



호국·보훈의식 및 애국정신을 함양하기 위한 호국 보훈의 날을 맞아 대전 국립현충원 장군 묘역(527호)에 안장된 대중중 故정수 전 도유사 묘역을 찾아 헌화 배례, 추모하고 왔다.

정수 전 도유사님은 젊음을 조국수호에 헌신 봉사하시고, 명예로운 대한민국의 장군이 되셨으며, 평산신씨 대중중의 도유사로서 崇祖敦睦을 위해 이바지하셨다. 이날 평산신씨 판사공파 서울화수회 세원(판사공파 전도유사) 월수(서울화수회 부회장), 범진, 상정, 영순, 설택, 병용, 무본 등이 대전 국립현충원을 찾아 고인의 고귀한 정신을 가슴에 새기고 친목과 화합을 도모하였다.

경백사 춘향제례 봉행



2021년4월29일 (음3월중정)11:00에 사천시 용현면 온정리 경백사(경상남도 지방문화재 자료 234호)에서 춘향제가 코로나 19로 유럽대표와 중원 대표 5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엄숙하게 봉행되었다.

초헌관에는 강석구 사천향교 전교, 아헌관에는 신재희 고문, 중헌관에는 신용성 감사가 맡아서 진행되었다.



경백서원 주위에는 경백사 한시(漢詩) 詩會 작품 20여편이 전시되었고, 신현권 총무유사는 경백사 주련시를 낭송하였으며, 사천향교 구암한시협회 정백림 회장은 경백사 4현을 추모하는 한시를 낭송하여 제례에 임하는 유림들에게 추모하는 마음을 더해주었다.

유근 도유사는 천추에 길이 빛날 장절공 신승겸 시조님의 업적을 찬양하였으며, 후손들이 그 정신을 이어 받자고 강조하였다.

윤유태 서원장은 코로나 19로 힘든 시기임 에도 제례에 참석하신 유림들과 평신신씨 종원 여러분께 감사드리며 경건한 마음으로 제례가 원만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정성을 다해 주시라는 당부를 하였다.

올해 경백사 춘향제례는 코로나 19로 인하여 축소 운영되었지만 경백사에 모신 4현을 추모하는 한시 전시(展示)를 통하여 벽상공신 장절공과 3현의 위업을 높이 평가하는 계기가 되었고, 그 정신을 추모하는 행사가 되었다.

일생동안 문중 종사를 위해 헌신하시다 별이 되신 공을 추모하면서 ~



현유(鉉有)공께서는(문희공 33세) 소시절 부터 君子로 세상에 태어나 선행의 덕업을 남기지 못하고 초야에서 늙어 생을 마감하는 것을 애석하게 생각해 오던 중 근처의 집안부터 화목하고 단

합해야 한다는 정신으로 모든 일에 솔선수범하여 집안을 갱생하였고 사재를 털어 불우한 청소년의 교육비 지원을 시작으로 사회활동에 발을 디디게 되었다.

이러한 신뢰를 바탕으로 집안 모두가 기쁜 마음으로 화합함에 시야를 넓혀 승조경양에 뜻을 두고 현대를 살아가는 우리들이 조상의 음덕은 잊어버리고 물질문명과 개인 중심으로만 살아가고 있음이 안타까워 승조정신을 높이고 일가 간의 정의를 북돋우고 자긍심을 드높이고자 시조님을 비롯한 선대의 묘소 및 재실을 찾아다니며 향사에 임하면서 현지 종원들과 유대를 돈독히 함과 동시 참제시 마다 제수비 봉심 등 정성을 아끼지 않았다.

3~40여 년 전 교통편이 열악할 때 며칠 간을 열차와 버스를 수차례 갈아타고 춘천, 용인, 음성, 문경 등지 선대의 시제에 참제하는 열정을 보였으며 아무리 바쁜 농촌의 농번기에도 선조의 향사, 시제에는 빠지는 일이 없었다.

공께서 일찍이 마음에 두고 있던 향리에 소재한 경백사 경내의 마당이 수침으로 인하여 향사 봉행에 어려움이 많은 것을 안타깝게 생각한 나머지 사비를 들여 배수구 등을 정리하고 그 위에 잔디를 식재하여 많은 종원들의 향사봉행에 불편이 없도록 하였으며 참배객의 접대를 위한 집기를 제공하는 등 거액을 지원하였고 몇 차에 걸친 지역 화수회 개최 비용 일체를 자부담으로 지원하여 일가 간의 화합단결에 헌신하였다.

전국에 소재한 선대의 재실 및 묘, 단소의 보수 시에도 거액을 지원하였으며 최근에는 경북 문경시 가은읍에 시조님 사당 태왕전 건립 시에도 5천만원을 쾌척하였고, 생전 각처에 지원한 액수를 합하면 수억 원에 이를 것이다.

공께서는 경백사 도유사, 사천시 화수회장, 표충재 부도유사, 장군단 부도유사, 대중중 대의유사 외 다수의 공적임무를 수행하면서 시조님을 비롯한 선대의 빛나는 역사적인 사실을 소상히 주지시켜 승조정신을 높이고 재정 지원으로 일가 간의 정의를 북돋아 화합단결하는 데 이바지하였다.

현대 사회는 대가족으로 부터 핵가족으로, 또 서양문물의 영향으로 사촌도 먼 것 같이, 심지어는 조상의 음덕마저 망각하는 인간성이 메말라가는 이때 그의 정신과 업적은 크게 빛났으나 애석하게도 향년 82세를 일기로 물(沒)하심에 유덕을 잊지 못하고 항상 그리운 마음만 느끼고 있을 뿐이다.

평산신씨 대중중은 공의 선행을 널리 알리고자, 진주시 화수회장 명식께 원고를 부탁하고, 광주·전남화수회 용기 자문위원께 추모의 헌시를 부탁하여 이를 중보에 게재한다.

그리움과 아름다움을 주고 별이 되신 故 신현유 도유사님 명복을 비오며

와룡산 상봉 글빛 태양 비추이고
남강 노래 은은히 여울지는데
아름다운 생애를 가뻗은 바람에 닳고
어찌 고독의 길을 외로이 떠나셨습니까?
세월이 간다는 건 큰 변화이기에
떠나시는 길 가슴 아프옵니다만
타고나신 인자하신 성품과
승조돈독의 거룩하신 정신으로
경백사의 현대화를 위한 열정과
사천시화수회의 화합 발전 등 종사발전에
쏟으신 정신 빛나고 있사오니
꽃송이보다 아름다우셨던 생애
길이길이 아름다움으로 남으리라

광야에 바다에 그리움 남기시고
유유히 떠나가는 우주의 산 그림자여
도유사님의 새로운 길 별자리 초롱하리니
청송 위 백학 같은 고결을 누리소서!
명복을 비오니 부디 영생을 누리소서!

2021년 6월 10일

시인 신 용 기 (평산신씨 광주·전남화수회 자문위원)

종원동정

“경북 농업명장”에 신종협 宗 선정



경북 영천시 신녕면 등에서 사과농사를 짓는 종협 宗(譜名 載錫 / 제정공파 37세)은 지난해 11월11일 경상북도 최고 농업 장인(丈

人)인 “경북농업장인”에 선정되었다.

종협 宗은 조기 다수확에 대한 욕심과 한정된 면적에 고소득을 올릴 수 있는 방법을 고민한 끝에 “키 큰 세장방추형”수형의 사과 밀식재배 방식을 국내에서는 초창기에 채택한 사과재배 선도 농가다. 宗은 현재 영천시 신녕면과 포항시 죽장면에 사과농사 1만2000여평을 짓고 있다.

宗은 3000평 재배면적에서 국내 평균 사과 생산량이 약 20톤 정도지만 “키 큰 세장방추형”수형의 사과 밀식 재배방식을 채택해 사과나무 3년 차에 된 시점에 3000평에서 60톤 이상의 사과를 생산해 낸다.

평균 3배 이상 수확량이 많다고 강조하고 새로운 재배 기술력으로 사과농사를 선도한 공로를 인정받아 경북농업명장(2020년)과 농식품부 신지식 농업인(2017년)에 선정되었으며 지난 2016년에는 경북농어업인 대상 전체 대상(2016년)을 수상하기도 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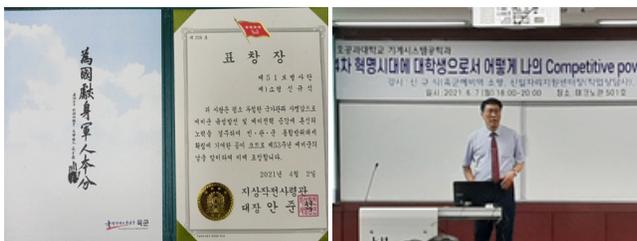
宗은 현재 농촌진흥청 원예특작과학원 명예 연구관 및 한국농수산대학교 현장 교수로 활동하며 국내외 농업인 및 관련 연구자 등 연간 5000여명이 재배기술을 배우기 위해 宗의 농장을 견학하고 있다.

영천화수회장에 따르면, 훌륭한 인격을 지닌 부부가 흠 어머니를 극진히 모시는 효자 효부이고, 영천시 농업인의 지도자로 크게 각광을 받고 있으며, 화수회에도 적극 참여하는 등 평산인의 자긍심을 드높이고 있다고 전했다.

본 기사는 평산신씨 영천화수회(회장 윤철)의 제보를 받아 게재하였다.

신규식(珪澍 온수감공파 34世)

민관군 통합방위태세 확립 공로 지상작전사령관 표창 수상



규식 宗은 지난 2021. 4. 2. 예비군의 날에(제53주년) 민·관·군 통합방위태세 확립에 기여한 공로로 지상작전사령관 표창을 수상하였으며, 2021. 6. 7. 국립금오공과대학교 기계시스템공학과에서 ‘제4차 산업혁명 시대에 대학생으로서 어떻게 나의 경쟁력(Competitive power)을 키울 것인가?’라는 주제로 특강을 하였다.

규식 宗은 충남 서천군 중천면에서 부친 신언모·어머니 김영경 사이에서 장남으로 태어나 육군3사관학교 29기 소위로 임관하여 현재, 경기도 수원시 지원예비군(예비역:소령)이며, ‘신일자리지원센터’와 ‘행정사신규식사업소’를 경영하며 일자리 취업지원 업무 및 행정사 업무 등을 하고 있다.

한양대학교 국제금융대학원 경영학 석사학위를 취득하였으며 한국리더십센터 상무, 청양군청, 수원시청에서 공무원으로 근무하기도 하였다.

규식 宗은 충남 서천군 비인면에 소재한 통덕랑(通德郎 / 정5품) 諱 龍(16世)의 墓를 충남 기념물로 지정하여 서천군에서 관리하도록 하고, 충효의 뜻을 받들어 관광산업으로 확대하기 위해, 충청남도에 요청하고 서천군과 협의를 진행 중에 있으며 이 숙원사업을 평생 소명으로 생각하고, 봉사하고 있으며 월선송조회 종친으로 열정을 가지고 헌신하고 있다

통덕랑 諱 龍(용)의 考는 고려말 충신으로 두문동에서 3父子가 불에 타 순국하신 溫水監公 諱 淇(휘 기)이다, 公은 경자년에 울리사, 을해년에 개성 두문동 서원에 배향되고, 2007년에는 고려통일대전에 배향되었다.

지역사회 의료지원 봉사에 앞장서는 신은호 (온수감공파 38世/영종하늘정형외과의원 원장)



[중구청 마스크 기부(2020년)]

인천광역시 중구 영종도 하늘도시에 있는 하늘정형외과의원 대표원장 은호宗(온수감공파 38世)은 영종도 유일의 마취통증의학과 전문의를 보유하고 있는 가장 큰 정형외과이다.

영종도는 병원 규모의 의료시설은 없는 상태로 하늘 정형외과 의원은 영종도에 개원한 첫번째 정형외과이자 지역적 특성을 고려하여 처음으로 365일 진료를 시작한 정형외과이다. 입원실, 도수치료실, 특수치료실을 운영하여 도서 지역이나 수도권 못지않은 의료 서비스를 제공하며 의료 취약지역인 영종도에서 은호원장의 높은수준 의 진료 제공과 수술적 치료뿐 아니라 비수술적 치료를 모두 이용할 수 있는 양질의 의료를 제공하고 있다.

이를 통해 2019년 9월 26일 제6회 대한민국 보건의

로 대상, 비수술 재활치료 부분 보건의료대상을 수상 하였다. 또한 도서 지역의 특성 상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에 취약할 수 밖에 없어 2020년 03월, 품귀 현상을 빚던 KF-94 마스크 8000개를 인천광역시 중구청을 통해 지역주민들을 위해 기부하였다(사진). 또한 신 원장은 코로나 바이러스 19 감염 진단을 위한 중구 제2청 영종 보건소의 의료진 부족으로 2020년 2월부터 현재까지 매일 1~2회 토요일에 진료를 단축하거나 진료 휴무일에 검체 채취 및 자원봉사를 하고 있으며 현재는 보건소 접종센터에 휴무일을 이용하여 매주 1회 의료지원을 지속하는 등 지역 내 보건의료 봉사활동도 지속하고 있다. 의료인 사회에서도 봉사에 앞장서는 신 원장은 대한정형외과의사회 의무이사, 대한영양의학회 기획이사, 인천광역시 이사회 중구 의사회 총무 이사를 역임하고 있다.

신동진(申東珍) 밀직공파 35세 법학박사 학위 취득



전북 남원이 고향인 동진 宗은 아버지 영철(永澈) 밀직공파 34세)과 어머니 송금자(宋金子) 여사와 사이에 3형제 중 장남으로 태어났다. 동국대학교 대학원 법학과 법학박사(2020.8.24.) 학위를 취득했다. 논문제목은 “귀속재산에 관한 법적연구”로 내용은 일제강점

기 이후인 광복직후 일제와 일본인이 남기고 간 재산을 적산이라고 하며, 이를 다루는 법이 귀속재산처리법이기때 적산을 귀속재산이라 하는데, 이 귀속재산이 어떻게 형성되었고, 형성되는 과정에서의 문제점은 무엇인지, 그리고 귀속재산이 어떤 방식으로 국가에 귀속되었고, 귀속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법적문제점은 무엇인지를 연구하였다.

또한 친일반민족행위자들의 재산을 국가가 귀속시키는 법을 약칭 친일재산귀속법이라고 하기에 이에 대한 문제점과 개선방안도 연구하였다.

宗은 현재 수원 소재 변호사사무실에서 근무하고 있다. 宗의 전자대동보 수단과정에서 대중중에서 박사 취득을 확인하고 이를 홍보에 게재한다.

기획시리즈 연재



삶의 뿌리. 아! 아버지

우리의 선조들께서 살아오신 세거지와 집성촌이 개별로 사라져 가고 후손들마저 뿔뿔이 흩어져 그나마 구전으로 전해지던 흔적들마저 사라져 가는 안타까움에 전해오는 이야기들을 기록으로 남겨 보고자 기획시리즈로 연재하려 한다. 이를 통해 각 종원 간, 문중별 또는 문중 간 증적, 횡적교류의 장이 되기를 소망

하면서 각 문중의 종원들께서는 동참해 주기를 호소한다.

제1편 : 정언공파 후촌공(後村公) 종중 이야기

◎ 입향조 : 22세 휘 성(諱晟)

○ 上系 : 15세 正言公 효(曉) - 16세 자계(自繼) - 17세 세경(世卿) - 18세 영(瑛) - 19세 광서(光緒) - 20세 감(鑑) - 21세 익룡(翊隆)

後村公 諱 晟(휘 성)께서 입향(병자호란 후1650년경)하신 관저동은 대전 8경의 하나인 구봉산이 병풍처럼 펼쳐있는 북쪽 자락에 큰 마을을 형성하며



[구봉산]

2000년 초반까지 집성촌으로 유지되어 번창한 가문을 이루었을 때, 황금물결을 자랑하던 들녘의 기름진 논, 벚짚날거리와 함

께 옹기 종기 모여 살던 이웃들이 정겹게 그리워진다. 구전에 의하면 後村公께서 詩經 국풍주남편에 나오는 관관저구(關關雎鳩)에서 이름을 따서 관저리로 마을 이름을 지었다고도 한다.

공의 나이 14살 때(병자호란) 考의 諱 翊隆(號 濠梁)께서는 시직(侍直) 벼슬로 형님(22세 號 舟村 諱 曼) 등 가족과 함께 강화도로 왕자와 왕자 빈을 모시고 피란을 갔다가, 인조(仁祖)가 항복을 하게 되자, 임금이 옥을 보게 되면 신하는 죽어야 한다며 자살을 시도했으나, 봉림대군(鳳林大君 후의 孝宗)의 만류로 실패하였다. 그러나 부군(夫君)이 자살한다는 소식을 들은 어머니(淸州韓氏)와 형수(南陽洪氏)는 끝내 순절하게 되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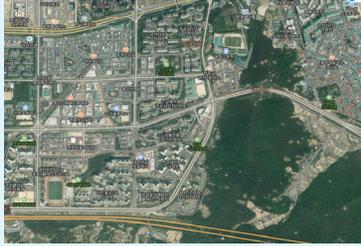
이 후 호량(濠梁)공과 주촌(舟村)공은 벼슬을 버리고 세상을 유랑하며 살게 되니, 항상 같이 따라 다녔던 아우 후촌(後村)공도 역시 벼슬을 하지 않고 떠돌아다니다가, 형님 주촌(舟村)공의 권유로 늦게 벼슬을 시작하여 靑山(현 옥천) 현감 및 三郡止平市署丞을 지냈다.

2005년 開發이 되어 보상을 실시하면서 후촌(後村)공의 11代 宗孫 33世 故 현국(鉉國)은 명의를 함께한 종원을 설득하여 宗山 일체를 後村公 宗中으로 편입시켜, 그 자녀 8남매와 종원 349명, 남녀, 노소 구별없이 모두에게 각 8천만원의 보상금을 분배하였다. 後村公 이후 그 자손들은 벼슬을 하지 않으면서도, 1870년(庚午), 1955년(丙申), 1990년(庚午)에 이어 2021년 까지 4차례에 걸쳐 가승보(家乘譜)(侍直公子孫錄)를 만들어 후손들에게 긍지와 자부심을 갖게 해 주었으며 후촌공종중이 화목하게 유지·발전하는 기반이 되었다.

33세에 와서야 겨우 경향각지에 출향하였고, 학문에 눈이 떠 각계, 각층에서 널리 지역사회와 국가에 봉사하고 있다. 400여명 남짓의 정언공파 후촌공종중(後村公宗中)에는 박사 6명이 약학, ETRI(한국전자통신연구원) 한국항공우주산업 등에 헌신하고 있으며, 33-34세에는 초중등학교장, 교감 등 교육계로 진출하였고, 11代 宗孫 故 鉉國 宗의 자손 중에는 국토교통부 감사관을 거쳐 서울고등검찰청 부장검사로 현직

에 있으며, 35세에 이르러서는 의사, 약사, 변호사, 감정평가사, 세무사 등 다방면의 전문직에 진출하고 있어 문중이 더욱 창성하여 빛나라라 염원한다.

지금도 매년 후촌공(後村公)의 향사에는 50여명의 자손들이 모여 봉행하고 있으며, 후촌공 종중의 총회는 100여명이 참석하는 성황을 이루고 있다.



지금의 관저리는 회색의 아파트촌으로 변하고 아늑하고 평화로운 고향의 정취는 볼 수 없다.

[正言公派 宗中 都有司 文澈]

▲ 집성촌 : 대전 서구 관저동 현재

墳墓基地權



[대중중 감사 신권채(34세)]

1. 意義

가. 분묘기지권이란 타인의 소유 토지 위에 분묘를 소유하기 위하여 분묘의 기지부분의 토지를 점유 사용할 것을 내용으로 하는 관습에 의하여 인정되는 지상권 유사의 물권을 말한다. 타인 소유의 토지에 분묘를 설치한 경우에 20년간 평은·공연하게 분묘의 기지를 점유하면 지상권과 유사한 관습상의 물권인 분묘기지권을 시효 취득한다는 점은 오랜 세월동안 지속되어온 관습 또는 관행으로서 법적 규범으로 승인되어 왔고 이러한 법적규범이 장사법 시행일인 2001. 1. 13. 이전에 설치된 분묘관하여 현재까지 유지되고 있다.(대법원 2017. 1. 19. 선고 2013다17292 전원합의체판결)

나. 매장·화장 및 개장의 신고 : 장묘문화는 매장, 화장, 개장, 자연장의 방법으로 장사하고 매장을 한자는 30일이내에 시장등에게 신고하여야 하고 묘지, 화장시설, 봉안시설, 자연장지 등에 장사한다. (법 제8조)

2. 墳墓基地權 制限

2. 墳墓基地權 制限

가. 2007. 5. 25. 법률 제8489호로 전면 개정된 “장사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토지소유자, 묘지 설치자, 연구자 자연장지 조성자 등의 승낙없이 분묘를 설치한 경우에 토지사용권 등 분묘의 보존을 위한 권리의 주장이 제한되고, 특히 동법시행일인 2001. 1. 13. 이후 설치한 분묘에 대해서는 분묘기지권의 시효취득이 인정되지 않는다(동법 제27조, 부칙제2조) 분묘 등의 점유면적은 공설묘지, 가족묘지 등 분묘1기 면적은 10㎡ 합장한 경우 15㎡ 개인묘지는 30㎡를 초과하여서는 아니된다(법제18조)

나. 전통적인 조상숭배사상, 분묘설치의 관행 등을 이유로 타인 소유의 토지에 소유자의 승낙 없이 분묘를 설치한 모든 경우에 분묘기지권의 시효취득을 인정해 왔으나 장묘문화에 관한 사회 일반의 인식변화와 장묘제도의 변경 및 토지 소유자의 권리의식 강화 등 예전과 달라진 사회현실에 비추어 볼 때 분묘기지권 시효취득의 관습에 대한 우리 사회 구성원들이 가지고 있던 법적 확신은 상당히 쇠퇴하였고 이러한 법적확신의 실질적인 소멸이 장사법의 입법에 반영되었다고 볼 수 있다.

3. 墳墓基地權 時效取得의 成立

가. 통상의 분묘기지권은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야 한다.

① 승낙형 분묘기지권 : 토지소유자의 승낙을 얻어 분묘를 설치한 경우에 인정된다 (대법원 2000. 9. 26. 99다14006 판결) 즉 당사자 사이에 분묘설치에 관한 합의만 있고 토지이용에 관한 구체적인 계약은 없는 경우이다.

② 취득 시효형 분묘기지권 : 토지소유자의 승낙없이 분묘를 2001. 1. 13. 이전에 설치한 후 20년간 평은 공연하게 분묘의 기지를 점유하여 지상권과 유사한 관습상의 물권인 분묘기지권의 시효 취득한 경우에 인정된다. (대법원 1996. 6. 14. 96다 14036 판결)

③ 양도형 분묘기지권 : 자기 소유의 토지에 분묘를 설치한 후 그 분묘기지에 대한 소유권을 보유하거나 분묘 이전약정 없이 토지를 처분한 경우에 인정된다. (대법원 1967. 10. 12. 67다1920판결) 등이 있다.

나. 분묘기지권은 봉분 등 외부에서 분묘 존재를 인식할 수 있는 외형을 갖추지 아니한 경우에는 인정되지 않으므로 이러한 특성상 분묘기지권은 등기없이 취득하게 되고, 분묘의 내부에 시신이 안장되어 있어야 한다.

또한, 가묘의 경우에 분묘기지권이 성립하지 않는다.

다. 공시방법으로서 등기를 요하지 않는다(대법원 1996. 6. 14. 96다14036 판결) 봉분이 분묘의 존재를 공시하기 때문이고 따라서 평장이나 암장의 경우에 분묘기지권이 성립하지 않는다(대법원 1991. 10. 25. 91다18040판결)

라. 관습법상 분묘기지권 합헌 결정은 타인의 소유토지에 승낙없이 분묘를 설치했다라도 20년간 평은·공연하게 분묘를 점유하면 이를 시효 취득하는 것으로 보는 관습법상 분묘기지권은 합헌이라고 헌법재판소는 결정하였다. (헌법재판소 2017 헌바 208 합헌결정)

4. 墳墓基地權의 內容

가. 분묘기지권의 요건이 갖추어지면 이미 설치되어 있는 분묘를 수호하고 봉제사하는데 필요한 범위 내에서 분묘기지권이 인정되고 분묘기지 주위의 공지를 포함한 지역에 까지 미친다. 그러나 분묘기지권은 기존의 분묘외 그 기지에 새로운 분묘를 설치할 권능이 포함되어 있지는 않는다. (대법원 2001. 8. 21. 2001다28367 판결)

나. 분묘기지권은 상속되고 권리자가 분묘를 수호하고 그 분묘가 존속하고 있는 동안 존속하며 상속될 수 있으나 양도 될 수 없다.

다. 분묘의 수호관리나 봉제사에 대하여 현실적으로 또는 관습상 종손이 그 권리를 가지고 있다면 그 권리는 종손에게 전속하는 것이고 종손이 아닌 다른 후손이나 종중에서 관여할 수 없으나 공동선조의 후손들로 구성된 종중이 선조 분묘를 수호 관리하여 왔다면 분묘의 수호관리권 내지 분묘기지권은 그 종중에 귀속한다.

5. 墳墓基地權의 存續期間

가. 분묘기지권의 존속기간에 관하여 당사자 사이에 약정이 있는 등 특별한 사정이 있으면 그에 따를 것이나 그러한 사정이 없는 경우에는 권리자가 분묘의 수호와 봉제사를 계속하며 그 분묘가 존속하고 있는 동안 분묘기지권은 존속한다.

나. 분묘가 자연재해 등으로 멸실된 경우라 하더라도 유골이 존재하면 분묘의 원상회복이 가능하며 일시적인 멸실에 불과하다면 분묘기지권은 소멸하지 않고 존속하고 있다. (대법원 2007. 6. 28. 2005다44114 판결)



象村(諱 欽)과 東陽尉(諱 翊聖)의 直系血孫을 찾습니다.

상촌(象村) 신흠(申欽)과 동양위(東陽尉) 신익성(申翊聖)으로 이어지는 가계의 맥(脈)을 잇고 있는 직계혈손은 아래 방법으로 연락을 기다립니다

평산신씨 중에서도 가장 위대한 직계혈손으로 모여 다시 한 번 영화와 번영을 꾀하고 집안을 번영케 하여 자손만대 번성과 함께 조상의 업적을 선양하고자 합니다.

상촌(象村) 흠(欽)께서는 상월계택이라 하여 이정구, 장유, 이식과 더불어 조선의 4대 문장가로 알려졌으며 공(公:상촌)과 더불어 동생, 아들, 두 조카와 손자 4명 등, 아홉 식구가 대과(大科)에 급제(及第)한 이력(履歷)을 가지고 있는 조선시대 최고의 명문가입니다.

상촌께서는 평산신씨의 족보(族譜)를 최초로 찬(撰)하신 분이시며 오늘날 평산신씨를 사대부 반가(班家)의 지위에 있게 하고, 조선조의 명망있는 가문으로 우뚝 서게 한 우리 평산신씨 조상 중 가장 위대한 업적을 남기신 분이십니다.

찬(撰)하신 족보는 선조임금의 부마(駙馬:사위)이신 아들 동양위(東陽尉) 익성(翊聖)에 의하여 1636년(인조 14년) 병자년(丙子年)에 왕실(王室)의 금수 활자본으로 인쇄되어 최초로 발간되었습니다.

동양위(東陽尉)께서는 뛰어난 재주와 기량을 가져 선조가 탐을 내어 12세 때인 1599년(선조32년)에 선조의 제3녀인 정숙옹주(貞淑翁主)와 혼인하여 동양위에 봉해 지셨습니다. 이와 같이 자긍심 있는 후손으로써 조상의 업적을 기리고 선양함에 동참하여 주십시오.

- ♣ 상촌과 동양위 직계혈손 등록처
- 1. 인터넷주소 : 00822400@naver.com
- 2. 핸드폰 문자입력 : 010-5274.0070 카톡(TALK)

- ♣ 등록시 필수입력
- 1. 조부와 부친의 함자(이름)
- 2. 본인의 이름과 전화번호, 이메일주소
- 3. 본적과 현주소(정확하게)

- ♣ 조건
- 1. 만18세 이상의 직계혈족으로 남,녀 구분없음

♣ 등록심사를 거쳐 정회원인 되신 분께는 정회원증서와 함께 별도 우편통지.

象村,東陽尉 宣揚會 會長 申東宙

인사

▶ 신임문화부장



- 申 金 澈(사간공파 34世) 1952년11월23日生
- 부산·경남, 대구·경북, 화수회/청장년회 총무, 부회장
- 사간공파중중 상임유사·감사, 판원사공중중 총무
- 대구광역시(비영리단체) 통일시민대학연합회 사무총장, 연합회장
- 통일부 통일교육위원(통일교육부분 국무총리 표창)
- 표창재 중중 상임유사
- 대중중 편집·종규위원 - 2021년 5월 21일자

2021학년도 2학기 장학금 지급

대중중에서 선정한 2021년도 장학생들에게 2학기 장학금이 8월31일 이내 지급될 예정입니다. 금년에 장학생으로 선정된 학생들은 재학증명서와 1학기 성적증명서 각 1통씩 8월 15일까지 보내주시고, 장학금을 수령하면 학교에 등록하고 영수증 사본을 9월 15일까지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다만 미등록이나 성적이 미달(전 성적보다 10%이하)시에는 장학금이 중단되니 이점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mail : pyongsan 777@naver.com

2021년 8월 ~ 10월 행사안내

- 8월 31일 : 장학금 지급
- 9월 16일 : 덕양서원 추향사(음 8월 중정일)
- 10월 3일 : 송의전 추향사
- 10월 6일 : 모영재 향사
- 10월 14일 : 시조 장절공 추향사 봉행(음 9 .9)
- 10월 16일 : 용산단 향사(음 9월 중정일)
- 10월 30일 : 종보 190호 발행 예정

바로잡습니다.

187호 7쪽 한성윤공파 파조 봉축고유제 첫째줄 11월4일(음9월19일)로 수정

189호 10쪽 덕양서원 성금내역 중 전북화수회 정치회장 5만원→ 10만원으로 정정.

16쪽 종보성금 신국철(경기고양→경북경산), 신성철(경북경산→경기고양)

성금 누락 : 신주철(대전 대덕) 50,000, 신진부 50,000

원고 모집

종보에 게재할 원고를 모집합니다. 선조들에 관한 글이나 종중행사, 미담, 시, 수필 등 문예작품, 건설적인 제안 등 특히, 금번 190호 부터 기획시리즈 “**삶의 뿌리 아! 아버지**”를 각 문중의 세거지, 집성촌에 대한 이야기들을 기록으로 남겨보고자 연재를 시작합니다.

종보를 발간하는 것은 종중의 역사를 쓰고 전통을 이어가는 일입니다.

생생한 기록으로 남겨 질수 있도록 많은 참여를 기다립니다.

- 보낼 곳

우 편 : 서울시 중구 수표로22 아세아빌딩 7층
FAX : 02)776-7990
E-mail : pyongsan777@naver.com

대종중 홈페이지에 들어가 보시면 ...

평산신씨대종중 홈페이지에는 평산신씨 소개, 선조유적지 등의 읽을 거리가 많습니다. 또 전자대동보를 열람할 수도 있으며, 족보수단(신규등재, 수정, 삭제 등)에 대한 안내도 있습니다. 또 대종중 행사에 대한 일정, 내용, 사진, 동영상, 공지사항 등을 볼 수가 있으며 전통문화예절에 대한 내용도 볼 수가 있습니다. 종원께서는 많이 이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네이버, 다음 등의 검색창에 ‘평산신씨대종중’을 치시고 주소에 클릭.
- 전자주소 : <https://www.pyongsan.com>
- 열람은 회원가입전이라도 가능하며 종원이 아닌 분도 열람이 가능합니다.
- 족보열람은 회원가입을 하시고 안내된 계좌번호로 송금(1년 : 3,000원, 5년 : 10,000원)하시면 됩니다.

‘종원동정’란 이용 안내

대종중에서 분기마다 발행하는 종보에 종원 동정 란을 통하여 시조 장절공의 후손들의 사회 활동 상황을 접수하여 등재하고 있사오니 많이 이용바랍니다.

인적사항 : 성명, 파, 세, 전화번호

방 법 : 귀감이나 모범이 되는 내용 (수훈, 자격증 취득, 합격, 직위취임, 선행 등)을 대종중으로 보내면 됨.

보낼 곳

우 편 : 서울시 중구 수표로22 아세아빌딩 7층
FAX : 02)776-7990
E-mail : pyongsan777@naver.com

2021년도 종보 성금 보내주신 분(4.21 ~ 6.30)

보내주신 성금에 감사드리며, 투명하고도 알뜰하게 잘 쓰겠습니다.

개 인

신성철 경기고양	20,000	신장현 서울은평구	20,000
신영수 서울 강남	50,000	신양수 경기 용인	20,000
신현부 경북 성주	20,000	신현태 경기 양평	50,000
신재설 경기 시흥	30,000	신용주 경기 성남	50,000
신현식 경기 의정부	20,000	신영균 곡성 석곡	20,000
신은호 인천 중구	50,000	신경수 전남 고흥	50,000
신재순 서울 동대문구	20,000	신동철 서울 중랑구	50,000
신철영 부천화수회	50,000	신동진 수원 통영구	50,000

파 종중

밀직공파 종중	100,000
---------	---------

소 종중

정인공파 교동종중	50,000	제정공파 약목종중	100,000
-----------	--------	-----------	---------

시군구 화수회

영천시화수회	100,000	안동시화수회	100,000
광주 광산구화수회	50,000	영주시화수회	100,000
서천군 화수회	50,000	안양화수회	50,000

총계 1,270,000

※ 광고 : 200,000원 상촌동양위 선양회 회장 신동주

〈종보 배부 기준 및 성금〉

- ★ 파종중·시·도화수회 : 50부 년 100,000원
- ★ 소종중·시·군·구화수회 : 20부 년 50,000원
- ★ 종 원 : 1부 년 20,000원

* 종보가 부족할시 10부당 성금을 20,000원 추가함.

종 보 성 금 : 하나은행 101-910005-90004 (평산신씨 대종중)
 농 협 301-0202-9520-1 (평산신씨 대종중)
 전자대동보 : 하나은행 027-766111-23504 (평산신씨 대종중)
 우 리 1005-103-123259 (평산신씨 대종중)
 구 독 신 청 : 02)776-6111, 776-6151

▶ 계좌 송금시 : 지역명을 반드시 표기 바랍니다. ◀

정치는 시대가 요구하는 것을 아는 것이 중요하고, 일은 실제적인 성과에 힘쓰는 것이 관건이다. 정치를 하면서 시대의 요구를 모르고 일을 하면서 실제적인 성과에 힘쓰지 않으면 비록 성군(聖君)과 현신(賢臣)이 만난다하더라도 치적은 이루어 지지 않을 것이다.

政貴知時, 事要務實, 爲政而不知時宣, 當事而不務實功, 雖聖賢相遇治, 效不成矣.

- 율곡 이이 - 「萬言奉事」(1574)